

한국 자생종교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 연구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상생적 삼계관을 중심으로 -

최원혁
(대진대학교)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자생적 근대성 이론으로서의 한국 자생종교의 위상
3. 근대성의 조건으로서의 삼계관과 리미널리티
4.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상생적 삼계관과 자생적 근대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2024년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예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아시아 상황은 마치 2갑자 120년전인 1904년의 러일전쟁 상황과 대자뉘를 이루어 마치 제2의 러일 전쟁을 목도하는 느낌이다. 2024년 대만에서 친미정권이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전운은 짙어져 한·미·일은 핵항모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러·중·북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1904년과 달라진 것은 북한은 러시아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까지 지위가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논리에 대리전쟁을 치러야하는 을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년전과 비교하여 작금의 동아시아 상황에서 특히 아쉬운 것은 동아시아 3국 곧 한·중·일이 120년이 지났음에도 120년전에 비하여 조금도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EU를 이루어 미국에 맞먹는 국력을 과시함에도 한·중·일은 경제력에서는 세계 1순위와도 경쟁하지만 120년간 한번도 정치적으로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모적인 전쟁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서구와 달리 화해와 상생에 취약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내면적으로는 근대화에서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 수립에 미비하였다는 점이 서구와 비교하여 주목될 수 있다. 유럽·미국과 달리 5,000여년간 변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동아시아지만 유독 근대화에서 동아시아 3국은 스스로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기보다 오히려 자생적 근대성 구축을 비판적으로 보아왔다. 자생적 근대성 구축을 비판적으로 본 결과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화해와 상생구축에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동아시아의 심화된 전쟁위기를 맞이하여 한중일 삼국 중 거의 유일하게 자생적

근대성 구축을 추구한 한국 자생종교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자생종교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은 한 때 600만 보천교, 1000만 천도교, 대부분의 항일운동가들의 종교 대종교 등 한국의 주류 사상을 이루었지만 광복 이후 개신교 등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에 의해 미신으로 치부되어 소외되어 왔다. 최근 한류 등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 자생종교의 근대성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글은 그동안 한국 자생종교의 근대성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삼계관을 다루고자한다.

삼계관이란 천지인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용어로는 세계관이다. 근대성에 있어 세계관이 먼저 논의되는 이유는 근대성을 포함하는 시대의 변화는 세계관 그 가운데서도 하늘과 관련되는 우주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우주관 변화는 종교개혁 등 계속되는 근대성으로의 전환에 기폭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 세계관보다 유독 삼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은 천지인을 상관적으로 보는 세계관이므로 서양의 세계관보다 삼계관이 더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먼저 자생적 근대성 이론으로서의 한국 자생종교의 위상을 살펴 본 후 근대성의 조건으로서의 삼계관을 살펴보고 자생적 근대성을 리미널리티 이론으로 검토한 후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상생적 삼계관을 비교하여 한국자생종교의 자생적 근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생적 근대성 이론으로서의 한국 자생종교의 위상

한국의 근대성 연구에 있어 왜 한국 자생종교의 자생적 근대성연구가 관계되는가 하는 부분은 그동안 축적된 근대성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된다. 근대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회학에서 근대성은 종교와 관계된다는 베버와 뒤르켐의 이론이 주류이론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버는 전 세계의 근대성과 종교의 관계를 위한 큰 기획을 추진했고 그 첫 시발점이 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종교사회학의 고전이 되었다. 베버 이전 근대성을 아담 스미스나 맑스와 같은 고전적인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기존의 인문사회학계는 베버의 연구 이후 인문학적인 칼뱅의 종교개혁이 정치경제학적인 자본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 물질적으로 중국에 뒤진 문명이던 서구에서 중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¹⁾

뒤르켐 또한 기계적 사회에서 근대라는 유기적사회로 진화한데는 종교의 변화가 가지는 영향에 주목했다.²⁾ 뒤르켐 또한 기계적 사회에서 근대라는 유기적사회로 진화한데는 종교의 의례가 가지는 영향에 주목했다. 사회학에서 근대성은 자본주의와 동일시되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근대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이 글에서도 동일하게 근대성을 우선 “자본주의화”라는 의미로 자본주의에 의해 실현되는 평등과 자유에 적용하였다.

서구와 달리 베버는 기존 연구에서 타 지역의 경우는 종교가 반대로 근대화를 방해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서양과는 반대로 동아시아가 근대화되지 못한 이유를 유교와 도교라는 전통 종교에서 찾았다. 베버의 연구에서 보듯이 유교는 일부 합리성이 있으나 부분적 합리성에 그쳤고 부분적 합리성이 오히려 보편적인 근대적 합리성을 방해한 이유로 지목

1) 이항직, 「유교 연구에서 베버 종교론의 가치와 재해석」, 『사회이론』 -(58): 125-165

2) 박진원, 「近代化에 對한 韓國 新宗教들의 對應樣相에 關한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되었다.

물론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며 유교가 오히려 서양에 근대성을 불러 일으킨 이유가 되었다거나 유교에도 개신교와 같이 초월적 요소가 있어 자본주의 동아시아도 자본주의의 맹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메쓰거의 연구도 있다. 두 이론 모두 동아시아 근대성에 있어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기존 종교가 방해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베버의 연구는 역설적으로 근대성에 동아시아의 자생적 종교개혁이 근대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자생종교는 광복이 되기 전까지는 보천교 600만, 천도교 1000만 등 대부분의 한국인이 신앙하는 종교였다.³⁾

근대성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과 한국 자생종교의 광범위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대성 성립에 있어 자생종교가 평가 받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라고 한다. 첫째, 외래사상을 선호해 온 동아시아의 전통이다. 실제 개신교를 배경으로 하는 정권이 독립과 더불어 들어서자 한국 신종교는 더욱 미신화 된다. 동아시아는 송나라 성리학의 사례와 같이 나라를 찾으면 사상이 종속되고 나라를 잃으면 사상의 주체성이 강조되었다.⁴⁾ 실제 한국 자생종교의 기원이 되는 동학은 수백년을 의존해 온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무너지면서 자구책으로 등장하여 이름도 동학이 된다고 한다.

둘째, 서구 근대성 이론에 영향을 받은 실학의 강조라고 한다. 한국 학계는 민족과 근대화가 강조되는 1960년대부터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일본 실학론에 영향을 받은 근대화 실학기원론이 학계의 주류가 되어 간다. 오늘날 근대성 실학기원론이 황태연⁵⁾, 정인재⁶⁾ 등에 의해 비판되고 있지만 서구의 유물론적 근대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영성을 강조해온 한국 신종교의 근대 기원설을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한국 근대 신종교의 상관적 사유이다. 상관적 사유란 현대 과학과 같이 사물을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원자, 분자와 같은 주체로 보지 않고 사물을 상호간의 관계로 파악하는 사유이다. 예를 들어 천지, 음양과 같이 동양의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상관된다는 뜻으로 서양과 달리 대비쌍을 함께 부른다. 이러한 관계성은 나아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서도 동양은 서양과 달리 나로부터 우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나로 축소되어 인식된다. 따라서 동양에서 세계는 가장 큰 천지에서 시작하므로 서양의 바둑이, 철수와 달리 천자문의 천지부터 교육이 시작하며 세계는 천과 지의 상관관계인 음양의 프랙탈 구조가 반복되는 음양오행의 상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 음양오행은 근대 초기부터 중국 전근대성의 원형으로 지목되어⁷⁾ 오늘날까지 음양오행을 통한 대규모 자생적 근대화 노력은 한국 신종교를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관적 사유가 동양에서는 전근대성의 원형이었지만 100여년 후 서양에서는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전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안적 근대성으로 재평가 되었다. 상관적 사유는 베버가 말한 근대성을 방해한 부분적 합리성이 아니라 서양의 나르시즘적 근대성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체철학적 사상으로 재평가 되었다.⁸⁾ 이에 이글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상관적 사유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상관적 사유의 대표적 사례인 삼계관을 통하여 한국 신종교의 근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미국립문서보관소, <http://blog.naver.com/sectork?Redirect=Log&logNo=140154104337>

4)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5) 황태연.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파주: 청계, 2018.

6) 정인재. "실심실학연구 서설 [1]." *신학과 철학* -, no. 14 (2009): 1-15.

7) 양계초, 풍우란, and 김홍경.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8) 정우진. "상관적 사유의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58 (2010): 1-25

3. 근대성의 조건으로서의 삼계관과 리미널리티

하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는 서양의 근대 또한 비록 단절이지만 하늘과의 관계로부터 근대성이 시작된다. 하늘은 인간 무의식의 초자아처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는 궁극적인 최종의 심급자이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신과 단절된 서양의 근대성은 모든 인간을 물질의 집합으로 간주하므로 만민은 서로 평등하고 자유를 가지게 된다.

같은 인간의 평등이지만 동학의 “오심즉여심”과 같이 하느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동일하게 간주한 동학의 근대성은 인간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같이 귀중하다는 점에서 서양과 반대지만 인간은 서로 평등한 존재가 된다.

삼계관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자유와 평등의 출현은 인류학에서는 통과의례의 리미널리티로 설명되고 있다. 인류학에서 삼계관이 근대성의 조건이 되는 것은 삼계관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리미널리티의 성격 때문이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는 공동체에 공동체를 유지하던 위계질서에 반구조적 성격이 나타날 때 구성원의 변화되는 애매한 의식상태를 통과의례에서는 리미널리티(Liminality)라고 한다.⁹⁾ 리미널리티는 문지방, 경계라는 의미의 “리멘(Lime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외부와 내부의 경계인 문에 배치한 두 얼굴을 가진 서양의 야누스나 그와 같은 원리로 동양에서 배치한 태극과 의미가 유사하다.

근대성이 급격한 변화의 가운데 있었던 점에서 근대에 나타난 근대 사상은 통과의례와 같이 리미널리티의 속성을 가지게 되어 평등과 자유라는 근대사상이 출현하는 것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결혼식과 같은 통과의례를 앞둔 남녀는 미혼도 아니고 기혼도 아닌 경계성을 나타내며 통과의례 전에는 통과의례와 반대되는 일탈과 반구조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근대라는 대변혁을 앞둔 사회 또한 전근대적 속성을 떠나기 전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평등과 자유의 시기를 통과한다. 동양에서는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이나 동학의 농민혁명운동이 있었다.¹⁰⁾

서양과 동양 모두 삼계관을 통해 리미널리티를 구축하며 근대성을 실현하지만 자기로부터 우주로 확대해가는 합리성을 가진 서양과 우주로부터 자기에로 합리성을 확대해가는 동양과는 근대성의 형태가 달랐다.¹¹⁾ 이 차이를 오해하여 서양에서는 동양에 근대성이 없다고 하며 동양을 식민지로 수탈했다. 다행히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기적적으로 러시아를 이김으로써 동양은 비록 일본 중심이지만 재기에 성공한다. 식민지 경영에 한계를 맞은 서양은 내부적으로 투쟁방향을 전환시켜 서로 공멸하게 되어 동양은 독립이라는 활로를 찾아낸다.

오늘날 리미널리티는 “액체근대”라는 근대성의 액체성과 “낭만적 사랑”이라는 근대성의 모순을 잘 설명해주는 근대성의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애초 베버 뒤르캠 등에 의해 구축된 오늘날의 정태적 사회학에 대한 대안이론으로 반 개념에 의해 제시된 리미널리티 이론은 빅터 터너 등에 의해 사회극으로 확장 적용되면서 동태적 사회학으로 일신시킬 주요한 사회이론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리미널리티는 동양의 상관적 사유와 유사성을 가지므로 리미널리티는 그동안 오해되었던 동양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이 되고 있다.¹²⁾ 일찍이 김지하 등은 한국 신종교가 가지는

9) 빅터 터너 Turner, Victor W. *(빅터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Translated by 김익두 and 이기우. 서울: 민속원, 2014. 205쪽

10) 윤승용. "新宗教의 反構造(Communitas)의 性格에 관한小考." 서울대학교 大學院, 1982.

11) Nisbett, Richard E., and 최인철.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2021.

12) 이영란. *리미널리티*. [liminality]. 서울: 동방인쇄공사, 2020.

근대적 특성을 힝그늘의 미학, 울려 등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리미널리티의 미학적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동양의 유불선 또한 탈근대적 사유의 원형으로 재평가 되면서 유불선이 기반한 동양의 상관적 사유가 가지는 근대성이 재평가 되어 왔다.

동양의 상관적 사유가 서양에서 재평가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동양은 동양의 삼계관에 나타난 상관적 사유의 근대성을 자생적 리미널리티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양의 삼계관을 수용하여 근대성을 구축하여 서양적 리미널리티를 구축했다. 따라서 동양은 서양과 달리 아직 자유와 평등이라는 진정한 리미널리티를 구현하지 못하고 서양에 의해 조정되어 한중일은 서로 대립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다.

동아시아 삼국 가운데 자생적 삼계관으로 근대성을 구축한 사례는 한국의 신종교이다. 5.4 운동과 메이지유신으로 전통적 삼계관을 배척한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신종교는 자생적 삼계관과 관계되는 개혁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 신종교의 근대성은 실로 자생적 삼계관의 변화인 “개혁”으로부터 근대성을 시작한다.

동학으로부터 시작한 자생적 세계관 변화인 “개혁”을 삼계관 변화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상은 한국의 신종교 가운데서도 대순사상이다. 대종교 또한 천부경을 통해 천지인을 강조하지만 대종교는 대순사상과 같이 삼계개혁이라는 “개혁”을 거론하지 않는다. 원불교, 천도교 같은 다른 신종교 또한 대순사상과 같이 개혁을 거론하지만 대순사상의 “삼계개혁”과 같이 삼계관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신개혁”, “물질개혁”과 같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 등 인간중심의 변화를 논의한다.

“삼계(三界)라는 용어 또한 대순사상에서 천지인을 가르키는 용어로 처음 나타난다. ”삼계“는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타냈고 천지인은 전통적인 동양사상에서는 재능을 나타내는 “재(才)”를 사용하여 삼재(三才)로 불리웠다. 불교의 욕계, 색계, 무색계 또한 천지인으로 해석된 사례도 있지만 대순사상에서는 도교와 같이 천지인을 천계, 지계, 인계로 해석하여 천지인을 삼재로 부르기보다 삼계로 표현한다.

전통적인 동양의 천지인 삼계는 “천원지방인각”이라는 서로 특정한 음양중관계를 나타내고 이 관계가 만물 전체에 적용된다. 장구(長久), 문호(門戶), 문리(文理), 도덕(道德), 혼백과 같은 동양의 단어는 “천장지구(천장지구)“, “천문지호(天門地戶)“, “천문지리(天文地理)“, “천도지덕(天道地德)”과 같이 삼재관을 기반으로 상반되는 것이 서로 태극의 원리로 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관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서로 관여하는 프랙탈적인 세계관인 삼계관에서 근대성의 근간인 리미널리티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확대된다. 상관적 사유에 기반한 동양의 유불선은 늘 대극의 합일인 역설을 지혜의 보고로 삼아왔다. 직설적인 대극의 합일을 주장하는 도교에서는 늘 음은 가장 강한 양이고 양이 가장 강한 음이었다면, 이중부정적인 대극의 합일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음과 양의 구분자체가 소멸되고 이중긍정적인 유교에서는 구분은 유지되지만 군신, 부부와 같이 구분은 통일을 위한 긍정적 구분이 된다. 상관적 사유에서 대립되는 한 쌍은 서로가 서로로 변화할수 있는 리미널리티가 분석적 사유보다 더욱 확대된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상관적 사유에서가 분석적 사유보다 더 다양한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었지만 원한이 누적된 왜곡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분석적 사유보다 자유와 평등이 억압될 수 있었다. 이에 동양에서는 원한에 의해 왜곡된 삼계를 개혁할 새로운 사상이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생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4.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상생적 삼계관과 자생적 근대

동양과 서양은 삼계관이 천지인을 의미하는 것은 같지만 동양이 상관적 사유를 하는 동양은 삼계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이 서양과 다르다. 특히 서학의 천인관계와 다르다는 의미가 강조된 용어인 동학이지만 동학의 천인관계는 중국의 천인관계와도 달랐다. 동학은 상관적 사유가 가지는 이상적 상황을 더욱 확대하였다.

물질인 천지가 생명인 인간과 소통한다는 상관적 사유는 하늘과의 단절로 시작한 서양 근대성의 입장에서는 전근대성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 서양 근대성의 한계가 대두되면서 재평가되고 있다. 하늘과의 단절로 시작한 서양의 근대성은 타자와 연결해주던 하늘과 단절되어 결과적으로 타자와 단절되고 급기야 스스로와도 단절되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기후변화 등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닥치고서야 서양에서도 하늘과의 단절로 시작한 근대성 개념에 반성의 움직임이 생기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상관적 사유에 의한 근대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토마스 쿤, 파이어아벤트와 같은 포스트모던 과학철학자와 같이 과학 또한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외부로부터 내부를 지향하는 상관적 사유에 의한 과학도 또 하나의 근대성으로 재평가되게 되었다. 방법의 문제는 결과를 통해 재평가될 수 있게 되었다. 바아흐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삼계관은 상관적 사유와 같이 천인관계, 지인관계, 천지관계와 같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적 삼계관 또한 대안적 삼계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삼계관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한국의 천인관계는 중국의 천인관계보다 더 상관적이고 중국의 천인관계는 서양보다는 더 상관적이었다. 동학에서는 서학의 단점을 천인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천인관계가 수직적인 것은 서양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임금에게 수직적으로 신하가 관계하듯 하늘과 법칙 앞에 인간은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다. 인간이 따라야만 중국의 도와 천을 도학이라 한다면¹³⁾ 인간의 한계 하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동학의 천인관계는 중국의 천인관계보다 훨씬 리미널리티적인 것이었다.

상관적 사유에서 천인관계가 천지의 모순을 중재하는 관계이듯 수운이 상제를 처음 만나는 장면과 이후의 상황은 유사한 상황인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마호메트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게 수운은 상제의 뜻을 수시로 거슬러 오히려 상제의 신임을 얻는다. 전통적인 한국 무속의 "모신다"는 의미를 상제에게까지 확대한 동학의 천인관계는¹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동학이 삼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동학에서 "다시개벽"을 강조하듯 관계를 중시하는 동학이 바라보는 당시의 삼계관도 서로 상생하지 못하는 상극적인 관계가 더 지배적이었다. 삼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대순사상에서는 삼계관에 대해 상생의 전통적인 삼계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삼계관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음양합덕, 삼재확립, 오행구비로써 음양이 합덕되고 삼재가 확립되고 오행이 구비되는 균형을 의미한다. 상극과 상생 모두 우주의 운행에는 필요한 것이나 이상적인 조건이 구비되면 상극이 없이 상생만 있는 세계도 구현될 것이라고 대순사상은 강조한다.

대순사상에서 상생적 삼계관이 구현되는 최종 조건은 음양합덕, 삼재확립, 오행구비를 넘어 도통진경을 제시한다.¹⁵⁾ 대순사상은 동학에 대해 대순사상을 참동학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13)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14) 조성환, 같은 책.

15) 무극도취지서, 촌산지순, 최길성, and 장상언. *朝鮮의 類似宗教*. 대구: 啓明大學校 出版部, 1991.

상생적 삼계관의 최종 조건, 곧 천지의 인간화육이 지향하는 최종 단계가 인간의 영적 완성 곧 도통군자의 배출이라고 한다. 대순사상에서 천지는 성공하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대순사상에서 하늘은 천지를 만들은 하늘과 천지에서 땅과 대응하는 하늘로 구분된다. 여기서 천지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한히 상생하는 새로운 천지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며 그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음양을 가진 인간이라는 의미가 된다.

대순사상에서 천지인의 삼계를 중재하는 것은 신명이 된다. 신명은 중국 소설 『봉신연의』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명이 하늘에 봉해지는 하늘에 신봉어천, 땅에 봉해지는 신봉어지, 인간에게 봉해지는 신봉어인의 단계를 거쳐 천지인을 조화시킨다. 신명은 진리에 지극한 존재로써 인간과는 음양관계에 있다. 신명은 천지를 운행하기도 하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지극하지만 인간은 신체가 있어 진리에 지극하지는 않지만 인정으로 천지화육에 동참하므로 신명은 인간을 도운다.

대순사상에서 궁극의 근대성은 천지화육의 완성 곧 도통군자의 배출이므로 그 이전까지의 역사는 도통군자를 배출하기 위한 일련의 수도의 과정이다.¹⁶⁾ 대순사상에서 이를 천지공사라고 하는데 천지공사 이후 생겨났던 많은 사건과 사고는 인간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대순사상은 희망적인 삼계관으로 근대성을 자생적인 낙천성으로 해석하였다.

5. 나가며

서양의 삼계관을 받아들인 동아시아 또한 서양과 같이 바우만이 말하는 액체근대¹⁷⁾와 일루즈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¹⁸⁾라는 리미널리티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는 이마저도 경제적인 큰 노력으로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언제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형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는 150여년전 처음 근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추구했던 자생적 근대성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 한국인은 지난 어떤 세대보다 불행한 존재로 늘 호들갑을 떨지만 역사에 대한 긴 안목과 자생적 근대성으로 본다면 오늘날 일반적인 노동자도 과거 세종대왕도 누릴 수 없었던 사치를 향유하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 수많은 기술문명은 오랜 시간 인류가 꿈꾸어 오던 기술이고 그 기술들이 실현되었지만 누구도 이에 감사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더 불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죽음이 오늘날 금지된 담론이듯 하늘과 단절된 현대인은 누구도 삼계관에 관심이 없지만 하비 콕스가 『세속도시』에서 말했듯이¹⁹⁾ 근대성이 만개한 자본주의사회에서 현대인의 대부분 일상엔 종교적 의례가 되어 삼계관의 리미널리티를 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은 큰 사원이며 일거수 일투족을 손익을 따지며 거래해야 하는 현대인은 일상이 의례가 되었고 시장이 사원이 되어 매일 통과의례를 치르는 리미널리티의 존재가 되었다. 현대인은 그러나 근대 이후 일찍이 하늘과 단절되어 의례로 소통할 존재가 사라졌다.

한국 신종교는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통적 삼계관으로 자생적 근대성을 추구해왔

16)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出版部, 1988

17) Bauman, Zygmunt, and 이일수. 액체근대. 서울: 강, 2009

18) Illouz, Eva, 박형신, and 권오현.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서울: 이학사, 2014.

19) Cox, Harvey Gallagher, and 이상률. 세속도시. 서울: 문예, 2010.

다. 외부 사상에 포용적인 동아시아 전통에 의해 자생적 근대성은 동아시아의 독립 이후 오히려 미신으로 치부되었지만 동아시아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다시금 자생적 근대성이 요청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5,000년간 문화를 유지해 온 유일한 문화권이다. 동아시아의 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급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한국 신종교가 추구하는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에 입각한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재고한다면 새로운 방향의 대안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uman, Zygmunt, and 이일수. 액체근대. 서울: 강, 2009. Cox, Harvey Gallagher, and 이상률. 세속도시. 서울: 문예, 2010.
- Illouz, Eva, 박형신, and 권오현.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서울: 이학사, 2014.
- Nisbett, Richard E., and 최인철.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2021.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出版部, 1988.
- 빅터 터너 Turner, Victor W. (빅터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Translated by 김익두 and 이기우. 서울: 민속원, 2014.
- 양계초, 풍우란, and 김홍경.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 윤승용. "新宗教의 反構造(Communitas)의 性格에 관한小考."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2.
- 이영란. 리미널리티. [liminality]. 서울: 동방인쇄공사, 2020.
- 이항직. "유교 연구에서 베버 종교론의 가치와 재해석." [In Korean].
- 사회이론 -, 정우진. "상관적 사유의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58 (2010): 1-25.
- 정인재. "실심실학연구 서설 [1]." 신학과 철학 -, no. 14 (2009): 1-15.
-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 촌산지순, 최길성, and 장상언. 朝鮮의 類似宗教. 대구: 啓明大學校 出版部, 1991.
-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 황태연.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파주: 청계, 2018.